

‘천정부지’ 밥상물가 상승세...서민들만 서럽다

‘밥상물가’ 신선식품지수 전년비 10% 넘게 상승
 달걀 69.3% ↑ 오징어 62.6% ↑ 수박 27.3% ↑
 실질소득 감소 저소득층들, 먹거리 지출 줄여

#서울에 사는 50대 주부 A씨는 “일주일에 2~3번은 장을 보는데, 한번에 5만원어치씩 사도 모자란다. 늘 이런 식이니 이번 달에는 어디서 돈을 줄여야 하나 고민”이라며 “신선식품이고 가공식품이고 모두 가격이 치솟는 상황이라 서민들만 죽을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일산에서 자취를 하는 20대 직장인 B씨는 “집에서 밥을 해먹고 싶어도 물가가 말도 아니게 올라서 장보기가 겁난다”면서 “혼자 살기 때문에 장을 보고 요리를 해보려해도 재료를 남기기 일쑤라 가정간편식이나 편의점 도식락으로 끼니를 때우는데 오히려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밥상물가 상승세가 매섭다.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을 받은 계란과 축산물 등이 전년도와 평년보다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뭄, 폭염에 장마까지 겹치면서 생육부진에 따른 채소류의 공급량이 떨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밥상물가와 연결되는 채소, 과일 등이 포함된 신선식품지수는 신선채소(1.8%)와 신선과실(21.4%), 신선 어패류(6.7%) 등이 모두 오르면서 전년 동월 대비 10.5%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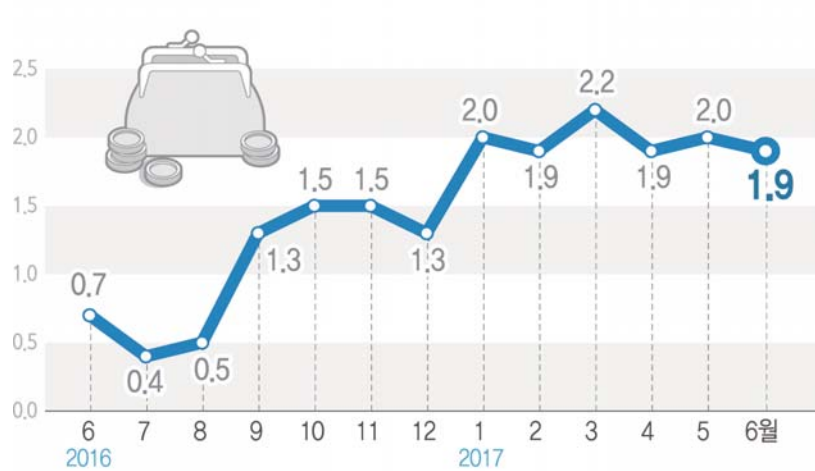
신선식품지수는 지난 4~5월 5% 내외로 올랐지만, 상승률이 두 자릿수로 나타난 것은 5개월 만이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올랐다. 농산물(7.0%), 축산물(8.6%), 수산물(7.8%) 가격 모두 고루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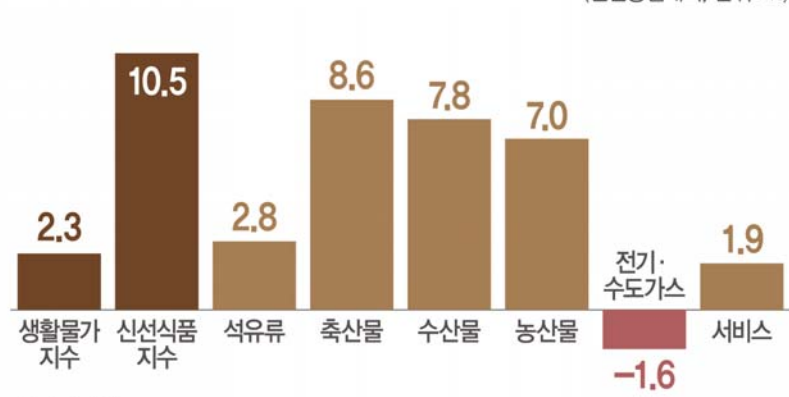
조류인플루엔자(AI)여파가 지속되면서 달걀 가격이 69.3%나 오르며 높은 가격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가 달걀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태국산 달걀 28만개를 전격 수입했지만, 국내 달걀 소비량은 하루 평균 4000만개로 0.7%에 불과하다. 병어리가 신단계가 되기까지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달걀값 상승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인 전망도 나온다.

오징어도 어획량 부족으로 62.6% 올랐다. 돼지고기 6.9%, 수박 27.3%, 토마토 29.3%, 감자 35.6% 등도 가격이 큰 폭 상승했

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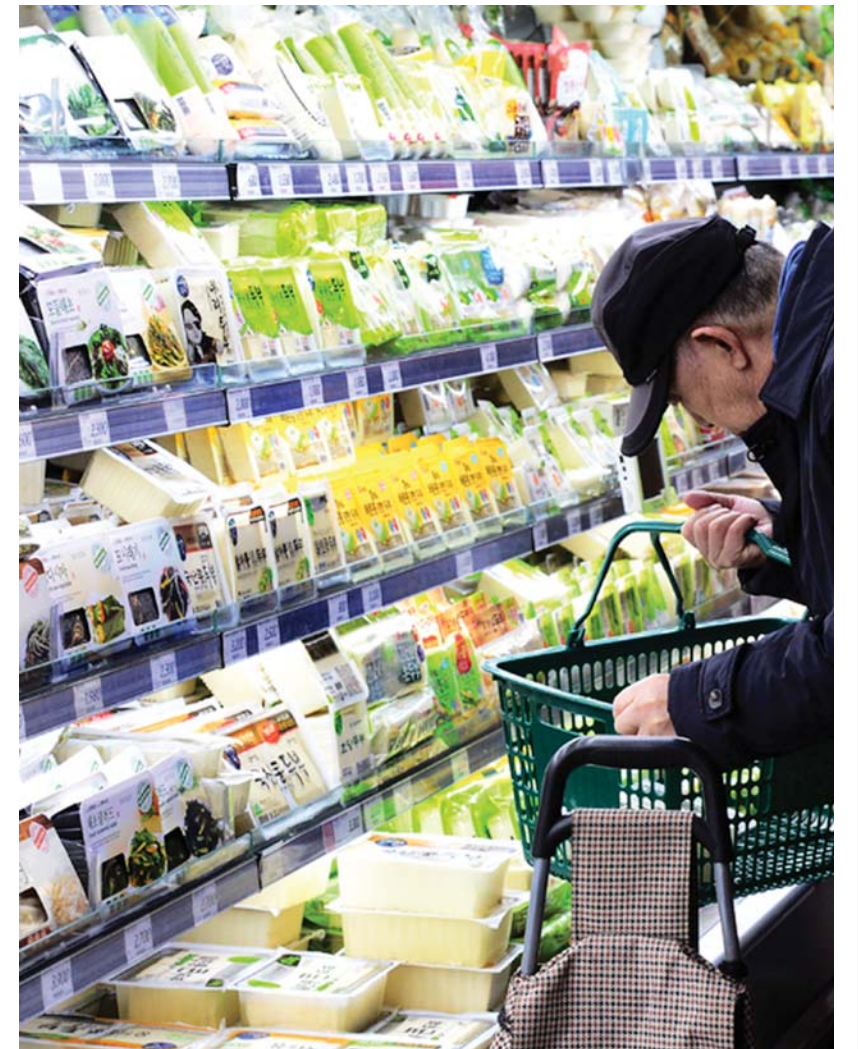
품목성질별 등락률



자료: 통계청

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장기간 이어진 경기부진의 여파로 실질소득이 더 줄어들었고, 집값 상승에 따른 월세 압박이 커진 저소득층들은 여쩔 수밖에 없던 먹거리 소비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세조 한국유통물류학회(연세대 교수)은 “저소득층 소득부진 속에 가계부채가 130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물가상승이 이어질 경우 민간소비 위축은 불가피하다”면서 “환경적인 요소의 영향이 많고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물가를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한



계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유통과 물류 등 구조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의 농축산물 유통구조로는 물가를 잡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각 품목별 다

양한 채널 리더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상생적 차원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도 중요하다”면서 “후진국형 유통물류를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밝혔다.



AI와 가뭄이 남긴 장바구니 근심

가격 하락하던 채소류, 가뭄에 직격탄 맞아
 감자 35.6% ↑, 무 28.9% ↑, 양파 29.8% ↑
 AI 여파에 달걀·닭고기 가격 고공행진해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에 극심한 가뭄까지 겹친 결과, 소비자들의 식탁물가가 들쭉였다.

축산물과 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던 채소류마저 오름세로 돌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근심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5%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신선 어패·채소·과실 등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0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통상 밥상물가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된다.

지난 1월 12.0% 상승한 뒤 2월에는 4.8% 오르는데 그치면서 상승세

가 누그러지는 듯 했다. 지난 4월과 5월 역시 각각 4.7%와 5.0% 수준을 기록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6월 들어 상승폭이 두 배 가까이 확대되면서 다시 상승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가뭄에 직격탄을 맞은 신선채소 가격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컸다. 신선채소 가격은 지난 4월 6.1% 하락했고 5월에는 8.5%까지 내렸으나 6월에는 1.6% 상승했다.

채소류 중 상승률이 전월보다 급격히 늘어난 품목은 특히 가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상추(10.6%→21.7%), 깻잎(7.3%→14.6%), 무(-5.3%→28.9%), 양파(9.5%→29.8%), 감자(10.7%→35.6%) 등이 대표적이다.

축산물과 수산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점도 밥상물가를 끌어올리는데 한몫하고 있다.

특히 달걀과 닭고기 가격이 여전히 치솟고 있다. AI 여파로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영향이다.

올해 들어 달걀 가격 상승률은 ▲1월 61.9% ▲2월 50.6% ▲3월 43.1% ▲4월 52.3% ▲5월 67.9% ▲6월 69.3%로 독보적이다. 닭고기 가격 상승률도 ▲3월 11.3% ▲4월 9.7% ▲5월 19.1% ▲6월 14.2% 등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수산물 중에서는 오징어가 달걀 수준의 가격 상승률을 보이면서 밥상물가를 흔들고 있다. 조업 문제로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6월 오징어 가격은 무려 62.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오래오래~
 우리 곁엔 언제나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이 있습니다.
 쓸 때마다 즐거운 우체국 체크카드,
 든든하게 힘이 되는 우체국보험,
 행복한 꿈을 주는 우체국예금까지
 이제, 우체국에서 만나세요~

언제나 내 곁에 ~